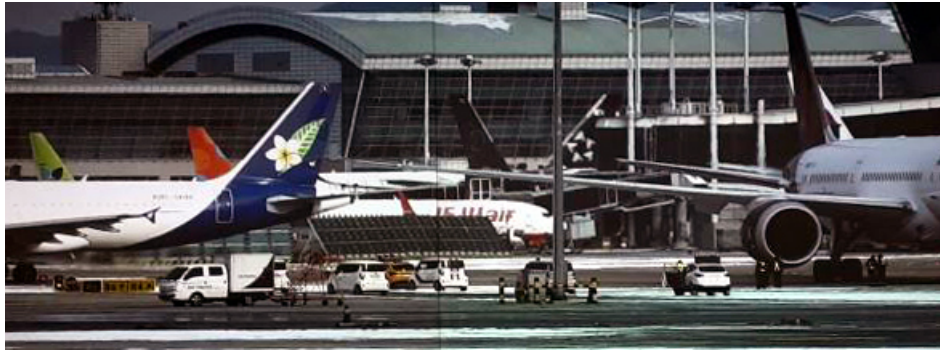


라오항공-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접촉사고...승객 118명 불편

등록 2022.12.19 16:22:16 | 수정 2022.12.19 16:27:43

인천공항 T1 계류장서 두 항공기 접촉사고
승객 118명 호텔로 이동 내일 대체편 투입



[인천공항=뉴시스] 홍찬선 기자 = 19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이륙하려던 라오항공 QV924편과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날개가 접촉사고를 냈다. 사진은 사고 모습. (사진=인천공항공사 제공) 2022.12.1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홍찬선 기자 = 19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간 접촉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.

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(T1) 계류장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으로 출발하려던 라오항공 QV924편 기체 꼬리 뒷날개와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날개가 접촉사고를 냈다.



[인천공항=뉴시스] 홍찬선 기자 = 19일 오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이륙하려던 라오항공 QV924편과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날개가 접촉사고를 냈다. 사진은 라오항공 여객기의 사고 모습. (사진=인천공항공사 제공) 2022.12.1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이 사고로 라오항공에 탑승했던 승객 118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.

국토교통부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는 두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시켜 조사를 하고 있다.

라오항공 관계자는 승객들은 현재 공항 인근의 호텔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20일 오전 12시40분께 대체편을 편성해 승객들을 수송할 것이다"라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mania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